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김다울**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dwk129@kiep.go.kr, Tel: 044-414-1070)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ykwon@kiep.go.kr, Tel: 044-414-1086)

**박은빈**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 차례

1. 개요
2. 주요 논의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21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9년 만의 일이며,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대북정책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북정책]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을 비롯한 핵심·신흥 기술 보호 및 진흥 협력 △국방·원자력·기후변화 대응·우주 부문 협력 △에너지안보 증진 등 공급망 관련 당면과제와 장기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조치의 구체화,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핵·재래식 무기·미사일 등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하고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확장 억제방안을 공약함.
  -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간기업의 상호투자 협력, 양국간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신설 등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양국간 국방·우주·바이오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음.
- ▶ 이에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기존 및 신설 대화 채널 활용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의 국제공조 및 기술협력 강화 △미국과의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한 원자력 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논의 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1. 개요

■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은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5월 2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 및 제반 상황을 통해 양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하는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음.
  -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정권 첫해에 한국을 찾은 이후 29년 만의 일임.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11일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난 60년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한국 윤석열 정부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미·중 간 갈등 지속 등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군사·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 되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이어져온 양국간 군사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품목인 첨단 반도체 및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자율로봇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핵심 및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
- 더불어 기존의 한미 간 군사안보 동맹을 경제 및 기술 동맹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상호간 의지를 재확인하며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함.

## 2. 주요 논의 내용

### 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대북정책

■ 북한이 올해 다수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모라토리엄 파기와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 북한은 올해 1월 제8기 6차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의 중단을 시사했으며,<sup>1)</sup> 올해에만 17회 미사일 실험을 실시함.
- 4월 열병식 연설에서는 ‘국가의 근본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쟁 억제 수단을 넘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내비침.<sup>2)</sup>

■ [확장 억제]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합의함.

- 미국은 핵·재래식무기·미사일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을 공약함.
  -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sup>3)</sup> 북한의 무력 행동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함.
-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참여인원 등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그 규모와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핵공격 대비 훈련 등에 관해서도 논의함.
  -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확장 억제전략에 관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협의체로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양국이 2017년 9월에 합의하였으나,<sup>4)</sup>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후속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음.

1)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함. 조선중앙통신(2022. 1. 2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2)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예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 근본 이익을 침해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2022. 4. 26), 「김정은총비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연설」.

3) 연합뉴스(2022. 5. 24), 「尹대통령 “선택은 감정에 달려·北 망하게 하려는 것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3143551009?input=1195m> (검색일: 2022. 5. 24).

4) 국방부(2017. 9. 15),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방안 합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837> (검색일: 2022. 5. 23).

-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회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2021년 4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하였으며,<sup>5)</sup> 사이버 활동이 주요한 제재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비핵화] 양국은 비핵화 관련 안건에서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전반적으로 계승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및 유엔 회원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함.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CVID’나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공동의 목표로 재확인함.
  -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하도록 촉구함.
  - 더불어 양국은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기존 대비 규모는 감소함.<sup>6)</sup>
- [외교적 관여] 한미 정상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양 정상은 평화적·외교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함.
    - 다만 2021년 정상회담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및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특징적
    -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원칙 있는 대북 관여’,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을 제시하였는데,<sup>7)</sup> 적극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고자 한 기존의 전략과는 다소 다른 기조를 보임.
  - 또한 양국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재확인함.
  -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합의함.
    - 북한은 5월 12일 최초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였으며, 5월 23일 기준 누적 295만여 명의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68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힘.<sup>8)</sup>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WHO는 북한 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sup>9)</sup>

5) UN Security Council(2022. 3. 1), 「S/2022/132」(검색일: 2022. 5. 24).

6) *Ibid.*

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8) 조선중앙통신(2022. 5. 24), 「전국적인 전염병전파 및 치료상황 통보」(검색일: 2022. 5. 24).

9) 중앙일보(2022. 5. 18), 「WHO “코로나 확산 북한서 새 변이 출현 위험 높아져 우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088#home>(검색일: 2022. 5. 23).

- 미국정부는 COVAX를 통해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하였고, 한국정부 또한 백신 지원과 더불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의약품, 진단도구 등의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sup>10)</sup>

## 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안보

- 한미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핵심 및 신흥 기술 협력, 장관급 정례회의 신설, 국방·에너지·원자력 부문 공급망 협력 등 공급망 관련 당면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양 정상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잠재적 공급망 교란 탐지/대응 및 핵심광물 공급/제련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내 원재료 확보 및 가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시스템 마련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양국은 공급망 재편의 핵심 품목인 첨단 반도체 및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자율로봇 등 핵심 및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를 설치하기로 합의
  - 양국 장관은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2022년 5월 21일)
  - 더불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양국의 산업협력대화 채널 마련 등을 목적으로 같은 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글상자 1 참고)
-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일정으로 한국 입국 직후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P3를 방문하며 미국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P3는 올해 가동 예정인 삼성전자의 첨단설비를 갖춘 반도체 생산 팹(fab)이며, 단일 반도체 생산 팹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임.
- 양 정상은 방위산업에서도 한미 간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에 대한 논의 개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 국방산업 내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이 강조됨.
  - 미국 연방정부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통해 협정체결국에는 자국 국방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한미 FTA에서도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미국과 양자 간 RDP MOU 체결을 통한 미국 국방산업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아울러 양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우라늄, 화석연료 등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10) 통일부(2022. 5. 16),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검색일: 2022. 5. 23).

- 이와 더불어 양국은 첨단·핵심 기술의 유출로 인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미 정상은 우주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관련 협력 강화에 합의함.

-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양국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여 2024년까지 여성과 유색인의 달 탐사를 목표로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이며, 이에 참여하는 국가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에 가입해야 함.
  - 한국은 2021년 5월 24일 아르테미스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 아랍에미리트(UAE)가 협정 출범(2020년 10월 13일) 당시 가입국임.<sup>11)</sup>
  - 한국은 일명 GPS로 잘 알려진 위성항법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자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14년간 진행할 계획이며, 미국은 향후 KPS와 GPS의 호환성 및 기술정보 교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음.<sup>12)</sup>
- 또한 올해 안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Civil Space Dialogue) 개최를 통해 양국간 우주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2016년 4월 이후로 개최된 바 없음.<sup>13)</sup>
  - 한미 양국은 대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보장에 협력하고, 국방 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

글상자 1.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간 협력 회의로, 양국의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이 모여 한미 간 공급망(반도체, 배터리 등) 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 지난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2021년 5월 2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석한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의 산업에 속한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여 한국기업별 대미 투자계획과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계획 발표가 주를 이뤘음.
- 올해에도 양국은 정상회담과 더불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인을 초청함.

■ 올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미 기업 간 미래 핵심 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됨.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양국 기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공급망 상황 진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방안, 디지털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11) 협정 출범 후 우크라이나, 한국, 뉴질랜드, 브라질, 폴란드, 멕시코, 이스라엘, 루마니아, 바레인, 싱가포르, 콜롬비아가 가입하였으며, 가입국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 12. 3),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 원으로 확정」.

13) 2016년 4월 개최된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명칭하에 진행되었음.

표 1.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

한국	미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반도체)	켈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대표이사(반도체)
SK그룹 최태원 회장(반도체, 전기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게리 디커슨 대표이사(반도체)
LG그룹 구광모 회장(배터리)	램리서치 티모시 아처 대표이사(반도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전기차)	GM 코리아 카허 카젠 사장(전기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바이오)	블룸에너지 케이알 스리다르 대표이사(수소)
한화솔루션 김동관 사장(태양광)	GE 코리아 김영제 총괄사장(태양광)
OCI 백우석 회장(태양광)	구글 스콧 버몬트 아태지역 사장(디지털)
네이버 최수연 사장(디지털)	코닝 웬델 워스 회장(통신 네트워크용 광케이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 22) 참고하여 재구성.

-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난해처럼<sup>14)</sup> 기업별 대대적인 투자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대응과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의 투자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한국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및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특히 한국의 제조역량과 미국의 기술역량을 결합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미국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양국간 경제·기술 동맹의 범위를 청정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하길 기대한다는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양국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공급망·산업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를 경제협력을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공급망·산업대화’(연 1회 개최)는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sup>15)</sup>를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하여 △디지털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이슈 등에 관해 논의하고,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채널임.
- 이창양 장관은 상무장관 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우리 기업이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차별 없는 혜택과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함.
  - 미 연방정부에 자국 내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한 지원책<sup>16)</sup>의 혜택 대상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시행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동반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줄 것을 요청

14) 2021년 5월 21일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15) 2014년 12월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통해 산업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협력대화(Commercial Dialogue)를 발족함.

16) CHIPS for America Act(미국 내 반도체 생산력 증대를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s Act(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설비에 대한 세금 공제), 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n Act(미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관련 제품에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 등.

- [기후변화 대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청정에너지(수소 등),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메탄 배출 문제에 대한 신속한 국제적 대응(‘글로벌 메탄 서약’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sup>17)</sup>와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함.
    -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목표 등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 재확인
    -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까지로 확정하는 데는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한 바 있음.
  - 청정에너지(수소 등),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메탄 배출 문제에 대한 신속한 국제적 대응(‘글로벌 메탄서약’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하고 메탄 배출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
  
- [에너지안보 증진] 한미 정상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조속한 보급,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원전 수출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함.
  - 원자력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이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며,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공유함.
  - 이에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개발 기반 확대 △원자력 공급망 구축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및 전 세계적 배치 가속화 등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 등의 논의를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함.
    - 2018년 8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재가동해 원자력 제반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4월 27일 청정에너지 혁신을 지원하고, 원자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파트너 국가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시킨 ‘FIRST’<sup>18)</sup> 이니셔티브<sup>19)</sup>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함.

17)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8)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19) U.S. Department of State(2021. 4. 27), “Program To Create Pathways to Safe and Secure Nuclear Energy Included in Biden-Harris Administration’s Bold Plan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https://www.state.gov/program-to-create-pathways-to-safe-and-secure-nuclear-energy-included-in-biden-harris-administrations-bold-plans-to-address-the-climate-crisis/>(검색일: 2022. 5. 23).

## 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미 양국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양국간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함.

-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 1)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 정책을 조율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다자적 노력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함.

-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함.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에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
-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원을 포함한 한국 신정부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한국이 2022년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
- 양국은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다자적 논의의 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및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 양 정상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강조함.

- 양 정상은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
- 또한 양 정상은 양국 내 여성 및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인터넷이 긍정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
  - \* 이를 위해 양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괴롭·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
- 이와 더불어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양 정상은 국내외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 및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

- 양국 정상은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 및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저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간 협력을 약속함.

- 양 정상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 내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것을 약속
- 또한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 공격을 반대하며,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도적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실시 중인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에 대한 자체 금융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

##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 **역내 협력 틀로서 부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내 최우선 경제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크게 네 가지 필라(pillar)로 구성됨.**<sup>20)21)22)</sup>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로서 IPEF를 제시함(2021년 10월).
  - IPEF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신통상 이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화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 IPEF는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네 가지 필라로 구성됨.
  - [필라 1] 연결된 경제(Connected Economy): 노동, 환경 및 기후,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우수 규제 관행, 경쟁정책, 무역 촉진 이슈 등 논의
  - [필라 2] 회복력 있는 경제(Resilient Economy): 필수품목 핵심 공급망 정보 공유, 지정학적 위기 대응 메커니즘, 필수 원자재와 광물의 안정적 수급방안, 공급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등 논의
  - [필라 3] 청정경제(Clean Economy): 역내 공공인프라 시장 개방, 역내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민간 및 공공 기금 조성, 탄소 저감기술 투자, 고탄소 배출산업 투자 제한, 탄소 절충 시스템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논의
  - [필라 4] 공정경제(Fair Economy): 글로벌 최저 법인세(GMCT: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적용을 비롯한 조세시스템 개혁 및 양자 또는 다자 조세조약 체결 이슈, 국제뇌물방지협약 준수 등을 포함한 역내 부패척결 방안 등 논의

■ **역내 최대 경제안보협력체 구축이라는 IPEF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열린 IPEF 출범식을 통해 역내 총 13개국이 참여를 확정지었음.**

20) Goodman, Reinsch(2022), "Filling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검색일: 2022. 5. 22).

21) Goodman, Arasasingham(2022),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검색일: 2022. 5. 22).

22) The White House(2022), "FACT SHEET: In Asia,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검색일: 2022. 5. 24).

- IPEF는 모듈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국이 모든 필라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필라에만 참여하더라도 IPEF 가입국으로 인정됨.<sup>23)</sup>
  - 이에 IPEF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필라를 중심으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IPEF는 포용성(inclusiveness)을 강조하는 경제안보협력체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향 대신 되도록 많은 수의 역내 국가를 논의의 틀 안에 포섭하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IPEF 출범식이 개최(2022년 5월 23일)되었으며, 역내 총 13개국(미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IPEF 참여를 확정지었음.<sup>24)</sup>
- IPEF 13개 참여국의 관심분야 및 상황을 바탕으로 국별 관심 필라를 예상해볼 수 있음.
  - 변화된 통상환경하에서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논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필라 1은 초기 6개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전망
  - 역내 수출통제조치 협력 등의 요소를 감안하면 필라 2에 대한 참여는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13개 참여국 중 특히 아세안은 인프라 투자 수혜 관점에서 필라 3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임.
  - 또한 CPTPP 협정문에 투명성 및 반부패 챕터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필라 4는 초기 6개국과 CPTPP에 이미 가입된 아세안 3개국(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

그림 1. IPEF 13개 참여국 관심 필라 예상



자료: 저자 작성.

23) CRS(2022), "Biden Administration Plans for a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p. 1.

24) The White House(2022), "On-the-Record Press Call on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검색일: 2022. 5. 24).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함.
  - 양국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우선적 현안에 대한 논의 및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수 있는 IPEF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하기로 합의함.
    - 이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는 한국 신정부의 구상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지지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 신정부의 환영이 모인 결과
    - 이에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
  
- 양국 정상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을 바라보는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높은 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함.
  -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는 한편,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에 주목함.
  - 이와 더불어 양국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양 정상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여타 해상 및 항공에서의 평화·안정·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법 존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적인 인권 및 법치 증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상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공,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대만해협 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2021년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언급된 내용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양국이 규범 기반의 질서 및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차원으로 보임.
  - 더불어 양 정상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 및 국제적 협력 동참 촉구 메시지를 발표함.
    - 양국은 미얀마 쿠데타와 민간인에 대한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구금자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

### 3. 평가 및 시사점

#### 가. 대북정책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간 대북 관련 협력은 외교와 관여보다 억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강화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규탄 및 성명서 채택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정상회담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언급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힘.<sup>25)</sup>
    -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재가동되며 구체적인 확장 억제 제공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비핵화 협상은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협상 정체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 북한은 2019년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선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옴.
    -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대북제재, 북한 인권 문제 개입 등이 있음.
  -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확대,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한 합의 및 공약이 이뤄지면서 북한이 기존의 전략을 고수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고조에 대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함.
    - 북한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한미의 지원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고 중국에 방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sup>26)</sup>
    - 이러한 기초가 장기화·고착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지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25) 연합뉴스(2022. 5. 24), 「尹대통령 "선택은 김정은에 달려..北 망하게 하려는 것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3143551009?input=1195m> (검색일: 2022. 5. 24).

26) 연합뉴스(2022. 5. 16), 「中, 대북 방역지원 여부 질문에 "북중, 위키시 상호 전통"」,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141300083> (검색일: 2022. 5. 24).

## 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안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경제협력 체계 구축 의지를 표명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일정을 살펴보면<sup>27)</sup>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동맹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통상적으로 국무부 장관이 동행했으나 이번 방한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동행하였으며, 3+3 소인수 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미국은 한국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받았으며, 한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함.
  - 다만 한국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2. 분야별 한미 기업의 대미/대한 투자계획

분야	국가	기업	발표연도	주요 내용
반도체	한국	삼성	2021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 계획(170억 달러 규모)
			2022	삼성SDI는 다국적 완성차기업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 예정
		SK하이닉스	2021	실리콘밸리 R&D 센터 설립 예정(10억 달러 규모)
	미국	듀폰	2020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투자(2,800만 달러 규모)
		램리서치	2022	반도체장비 연구개발센터 개소
		온세미 컨덕터	2022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2억 달러 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한국 + 미국	SK그룹	2021	포드사와 합작을 통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6조 원 규모)
			2022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EV(현 SK시그넷)와 미국 전기차 충전기업 EverCharge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한국	LG 에너지솔루션	2022	- GM과 합작을 통한 오하이오주 배터리 제1공장, 테네시주 제2공장 건설 중이며, 미시간주에 제3공장 건설 계획(100억 달러 규모) - 미국 애리조나주 키크릭에 연산 1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 계획(1조 7,000억 원 규모)
				2022

27) 삼성 반도체공장 시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IT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업 위주 초청, 현대차 부회장 단독 면담 등.

분야	국가	기업	발표연도	주요 내용
바이오	한국	롯데	2022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소재 미국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바이오의약품 공장 인수(1억 6,000만 달러 규모)
	미국	싸이티바	2021	고부가 세포 배양백 생산시설 투자(5,250만 달러 규모)
		씨모피셔 사이언티픽	2022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을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주요 투자처로 고려한 조치
신재생 에너지	한국	한화솔루션	2022	미국 태양광 모듈 공장(1.4GW 규모) 건설(2,000억 원 규모)
		OCI	2022	텍사스주, 뉴저지주, 조지아주 등 총 10개(700MW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의 사업 확대 검토
디지털	한국	네이버	2022	미국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지속
	미국	넷플릭스	2022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영화세트 건립(1억 달러 규모) ※디지털 콘텐츠 제작협력 및 가상제작(virtual production) 기술이전 효과 기대

자료: 2021/2022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관련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정리.

■ 국제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미국은 첨단산업의 핵심 및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해당 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어 양국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정부 입장에서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양국간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언급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직접 담긴 점으로 미뤄볼 때, 이와 관련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우주산업 내 양국간 다양한 협력 기회 모색 필요
  - 단기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완화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교적 언급 횟수가 적었던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도 향후 양국간 협력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한미 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대화 채널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반도체의 경우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의 핵심 품목으로, 향후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한미 공급망·산업대화’와 함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한미 공급망·산업대화’에서는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경제안보 이슈가 다루어질 예정이며, 한미 공급망 협력 논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sup>28)</sup>

28) 산업통상자원부(2022. 5. 22), 「(참고자료)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韓美 상무장관 회담 및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609&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1&ept\\_v=&search\\_val\\_v=](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609&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1&ept_v=&search_val_v=)(검색일: 2022. 5. 24).

- 2021년 12월 9일 처음 개최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는 공급망·산업협력 작업반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현황 및 미래 공급망 강화 방향, 기술개발, 인력, 투자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sup>29)</sup>
- 미국은 EU와도 글로벌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발족시킨 바 있음.

■ 향후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기후변화 논의에 공동보조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 △기술협력을 통한 제3시장 진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2022년 3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공조 등의 이슈가 논의되었음.<sup>30)</sup>
-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up>31)</sup>, ‘국제기후클럽(International Climate Club)’ 결성 등 다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공동 대응할 수 있음.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부문 등과 연계되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도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G7 의장국을 맡은 독일이 기후클럽 결성을 주도하는 가운데 탄소 가격결정, 국별 규제 및 인센티브 비교를 통해 각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프로그램이 무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며, 탄소중립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비회원국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한미 양국은 친환경 저탄소 관련 제품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제3시장 진출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음.
  - 수소 생산 및 활용,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탄소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구축과 같이 기술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 필요
  - 또한 개도국 시장 진출 시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에너지 저소비형, 저탄소형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한미 양국은 에너지안보 협력을 통해 △소형원전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원전 수출 확대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원자력발전 활용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원전시설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소형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발표된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거나 프로젝트에 착수한 국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2. 9), 「한국과 미국,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손 맞잡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407>(검색일: 2022. 5. 24).

30) OECD(2022. 3. 31), “Countries pledge to step up action on climate and environment at OECD Environment Ministerial,” <https://www.oecd.org/environment/countries-pledge-to-step-up-action-on-climate-and-environment-at-oecd-environment-ministerial.htm>(검색일: 2022. 5. 20).

31)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가는 약 30개국인데, 대부분 그리드 용량이 크지 않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음.<sup>32)</sup>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을 통해 2030년대에 수출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sup>33)</sup>
- 한국은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외교력을 활용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이 매년 2.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sup>34)</sup>

## 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국은 IPEF 출범 당사국으로 참여한 만큼 주요 분야별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출범한 IPEF에 한국은 초기 당사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무역,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등 주요 필라별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결된 경제’ 필라를 통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했던 232조 철강 쿼터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일본 및 대EU 철강 관세 개선조치를 참고
  - 또한 ‘회복력 있는 경제’ 필라를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첨단 반도체 및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한국이 역내 공급망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핵심 광물 수급을 위해 참여국들과의 공급망 정보 공유 및 자원개발 협력을 개시할 필요
  - ‘청정경제’ 필라에서는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공동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아세안의 IPEF 가입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
  -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적용으로 인해 한국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정경제’ 필라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IPEF 가입국에 의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실질적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 파트너들과 협력
-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IPEF의 3가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음.
  - IPEF가 내세우는 포용성의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향이 아닌 되도록 역내 많은 국가를 프레임 워크 안으로 끌어들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중국 측에

32) 한국수력연구원(2021. 10. 20),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p. 10, 제15회 창원시 기술혁신 전략 세미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현황과 산업연계 및 육성 세미나 발표자료.

33) 위의 자료, p. 14.

34) 한국원자력연구원(2021. 10. 20), 「우리나라 SMR 개발 현황」, p. 25, 제15회 창원시 기술혁신 전략 세미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현황과 산업연계 및 육성 세미나 발표자료.

설득 논리로 삼아 기존의 양국간 경제 협력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 미국이 IPEF를 통해 아세안 및 인도 지역에 대한 진출로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동 지역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부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대외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경제 협력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장이었음.
- 한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얀마 쿠데타 등 글로벌 안보와 직결된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미국과 함께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어 3국간 협력체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EP**